

# 백화점, 지역민에 '한걸음 더 가까이'

### 광주신세계, 착한 식당 지원·난치병 돕기 바자

### 롯데백, 대인동 전자거리 활성화 상설 이벤트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지역민과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는 지난 7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대인시장에서 영업중단 위기에 몰린 '해뜨는 식당' 돕기에 나선데 이어 11일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희망 바자'를 열어 이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전달하는 형식의 지역행사로 변화한 점이 주목된다.

이마트는 이 날 행사를 위해 400만원의 기부금과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으며 행사 판매 수익금 전액을 광산구와 서구에 거주하는 희귀난치병 어린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자의 거리 상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판매기법, 디스플레이 등 백화점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재능기부 형식으로 직접 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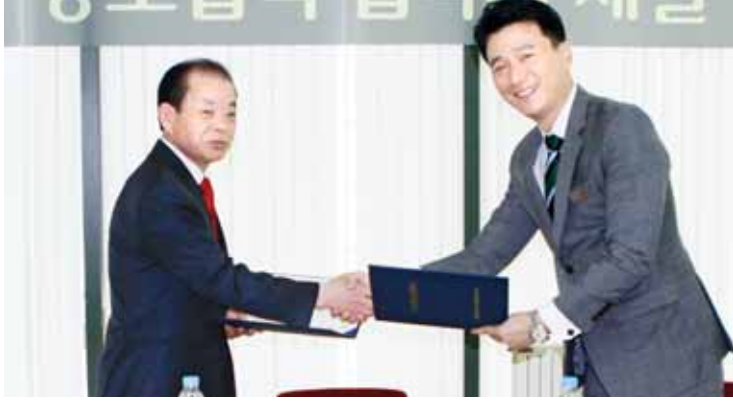
는 희귀난치병 어린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가동, 지역민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동구 대인시장에 이어, 인근 대인동 전자의 거리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9일 대인동 전자의 거리 상인회와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자제품 '쇼룸 1번지'로 1990년대 말까지 명성을 얻었던 전자의 거리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쇠락의 길에 들어섰다.

롯데백화점은 전자의 거리 부흥을 위해 상가를 찾는 고객들에게 편리 주차장을 개방하고 비보이·난타 공연, 거리 가요제 등 정기적으로 이벤트를 열어 고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자의 거리 상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판매기법, 디스플레이 등 백화점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재능기부 형식으로 직접 전수



백화점들이 지역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11일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열린 '희귀난치병 돕기 희망바자회'(사진 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전자의 거리 상인회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2월 대인시장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이후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주변 소외계층을 겨냥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백화점 내 분야별 전문가 모임인 '지역상생연구회'를 발족, 본격적 활동에 나섰다. /김대성기자 bigkim@

# 전국 휘발유값 1800원대

### 10개월來 최저...광주 1871원-전남 1894원

국내유가가 9주 연속 하락하며 ㄹ 당 1800원대에 진입했다. 국내유가가 1900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이후 10개월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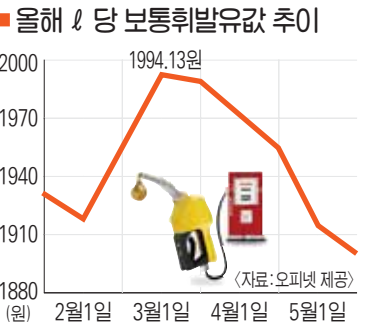
12일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전국 주유소 판매기준 보통휘발유의 ㄹ 당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0.89원 내린 ㄹ 당 1899.94원으로 3월 첫째 주 이후 9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기름값이 9주 이상 하락한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이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의 휘발유 가격도 이날 ㄹ 당 1971.22원으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이 넘는 10개가 ㄹ 당 1800원대로 가격이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ㄹ 당 1939.79원을 기록했고 세종(1918.20원), 충남(1917.73), 강원(1907.51원), 대전(1905.21원), 경기(1902.38원) 등이 뒤를 이어 1900원대를 지켰고 전남(1894.13원), 전북(1890.60원), 경남(1887.89원), 경북(1883.48원), 부산(1882.26원) 등은 1800원대로 낮아졌다.

대구는 ㄹ 당 1871.23원으로 가장 낮았고 광주(1871.96원), 울산(1873.56원) 등의 순으로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또 이날 오전 8시 현재 자동차용 경유도 ㄹ 당 1698.88원을 기록, 2011년 3월 3일(1698.87원) 이래 2년2개월 만에 1700원선을 하회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이와 같은 유가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유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중동의 지정불안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공급 충격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된 상태고, 유럽·중국의 경제침체와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가 국제유가 하락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 4월 주택담보대출 4조원 ↑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나온 지난 4월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저금리 기조로 정기예금 감소세가 이어진데다 계절적 요인도 겹쳐 원화 수신했은 대폭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이 3월보다 4조3000억원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같은 모기지론 양도분 3조3000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가계대출 증가분 가운데 3조2000억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월 6000억

원, 2월 2조1000억원, 3월 2조3000억원 각각 늘면서 계속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기업대출은 부가세 납부나 분기말 일시 상환한 대출금의 재취급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보다 5조1000억원 늘었다. /연합뉴스

#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6월 본격 논의

### 노동부...노사 첨예대립속을 최대 쟁점 부상

노사정이 6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를 놓고 본격적으로 공식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올해 노사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1일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르면 1 임금 지급기(한달 주기)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가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임금은 따라서 근로자의 초과 근로 수당과 향후 퇴직금 정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면 초과 근로 수당은 물론 퇴직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재계 및 사측

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상여금을 정해진 달 또는 분기별로 주는 사업장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행 정부 규정에 따르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1 임금 지급기 내 정기성, 일률성·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성 등 크게 3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일률성·고정성과 관련해 정부는 상여금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며 관례도 대체로 이와 동일한 입장이다.

그러나 1임금 지급기 내 정기성 항목에서 행정해석과 관계의 입장이 엇갈린다.

행정해석은 '(상여금) 1 임금 지급기 내에서 계속 지급돼야 정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고 대법원은 이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관례를 내놓았다.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사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논의를 더 이상 미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5월 한 달간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 6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광주농협, 영농철 농가 일손 돕기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는 11일 광산구 평동농협 관내 20농가에서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학생 250여명과 함께 배꽃작과, 법사과종 등 영농철 부족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특히 농협광주지역본부는 영농철을 맞아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대 공과대학 총학생회(회장 김영백)와 협약을 체결해 광주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해 이날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박태식 광주지역본부장은 "여러 단체들이 농촌사랑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집합이 역할도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금융권 '감의 횡포' 작년 10만건

### 전년비 12% ↑ ...농협은행·KB 국민카드 등 집중 점검

금융사 횡포에 소비자의 민원이 폭주해 지난해 1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등은 고객 민원에 불성실한 금융사로 분류돼 감독 당국의 집중 점검을 받는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민원은 9만4794건으로 전년의 8만4731건보다 11.9%, 1만건 늘었다. 금융 민원은 2008년 6만5758건,

2009년 7만6825건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 7만2169건으로 감소했으나 2011년 이후 경기 불황 장기화로 인한 금융 소비자 불만 고조와 지속은행 영업 정지 등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분야별로는 보험 민원이 지난해 4만8471건으로 전년의 4만8011건보다 18.8% 급증했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포함) 민원은 2011년 3만

9998건에서 지난해 4만2791건으로 7.0% 늘었다. 금융투자 부문만 지난해 3532건으로 전년의 3932건에 비해 10.2% 줄었다.

전체 민원의 절반인 51.1%가 보험 민원인 셈이다. 보험 민원의 27.8%는 보험 모집 불만이었고 보험금 산정(26.8%), 면책 결정(8.1%), 계약상립·실효(8.0%) 순이었다.

은행·비보험 민원은 대출(25.2%), 신용카드(20.1%), 후순위채권(12.6%), 신용 정보(6.7%) 순으로 많았다. /연합뉴스

이것이 만나리 갑니다

탈북미녀와 감동베라이어티 쇼!

함께하는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